

성장과 빈곤

- 국내 K-pop 연구 20년 동향 -*

채석진** · 이정엽***

1. 서론
2. 이전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 3.1. 접근 방법
 - 3.2. 데이터 수집
 - 3.3. 데이터 분석
4. 연구 결과
 - 4.1. 학술 논문의 연도별 발행 추이
 - 4.2. 주제 분야별 학술지 논문수
 - 4.3. 학술지 통계
 - 4.4. 주제 범주
 - 4.5. 주제별 연구 동향
5. 결론

* 부족한 원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조언과 수정 방향을 제공해주신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조선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K-pop 관련 학술 논문 511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집한 논문들을 11개의 주제 범주로 분류하고,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K-pop 연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텍스트와 재현’, ‘산업과 생산’, ‘교류와 전파’, ‘매개와 순환’, ‘수용과 팬덤’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국가 이미지, 커버댄스, 지구화와 혼종성 등 K-pop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분석, 음반과 굿즈, 공연, 음원과 스트리밍, 규제와 개입, 혐한류와 안티 K-pop 등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다. 또한 K-pop 연구에 기반한 새로운 이론이나 분석틀의 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K-pop 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K-pop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현실 반영성 강화, 학제적 연구 심화, 새로운 이론과 분석틀 개발, 비판적 분석 강화, 장기적 연구 수행, 글로벌 맥락에서의 이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K-pop, 연구 동향, 대중음악연구, 문화연구, 학제적 연구, 대중음악.

1. 서론

H.O.T가 2000년 중국에서 개최한 콘서트의 깜짝 성공 이후, K-pop은 지난 24년 동안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달성, 블랙핑크의 코첼라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선정 등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

었다. 이러한 K-pop의 괄목할 성장에 발맞추어 K-pop에 대한 학술연구 또한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어왔다.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의 문화 정체성, 글로벌 문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트랜스미디어 현상, 팬덤 문화의 진화 등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를 아우르는 복합적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학, 문화연구, 미디어학, 경영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K-pop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K-pop 관련 학술 연구와 지식 생산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K-pop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 1-1. K-pop 연구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1-2. K-pop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2. 향후 K-pop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메타 연구를 통해 ‘K-pop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지식이 생산되어 왔는가’라는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K-pop 연구’라는 분야가 어떤 학술적 정체성을 갖고 발전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K-pop 관련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여 총 511편의 학술 논문 초록을 검토했다. 이 논문들이 시기, 분야, 주제에 따라 어떻게 분포했는지, 두드러진 분야와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연구 흐름을 분석했다. 또한 미디어

문화연구자로서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주제와 쟁점을 선별해서 집중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향후 K-pop 연구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K-pop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K-pop 연구의 양적 성장, 주제별 분포, 시기별 변화 등을 포함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pop 연구의 특징, 한계점,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발견점을 요약하고 K-pop 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2. 이전 연구 검토

K-pop에 대한 연구가 2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게 됨에 따라, 이러한 연구들의 동향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메타 연구도 이미 몇 편 발표되었다. 본 장에서는 국내 및 국외 K-pop 연구 동향에 대한 주요 메타 연구들을 검토하고, 각 연구의 방법론과 주요 발견점, 그리고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 K-pop 연구 동향 분석은 지금까지 세 편이 출간되었다. 김준희(2019), 오지민·이수범(2021), 이연경·김태중(2024)은 각각 상이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K-pop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김준희(2019)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등재 논문 87편을 사회, 문화, 경제, 교육, 패션, 기타(미학)와 같은 주제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국내 K-pop 연구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가별 지역별 연구가 87편 중에서 19편으로, 개별 국가에서 K-pop 현상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또한 K-pop에서 여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실시간 소통 라이브 플랫폼에 관한 연구,

K-pop의 역사적 연원으로서 광대에 관한 연구 등을 주목할 만한 연구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 대상 논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며, 주제 범주화의 논리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오지민·이수범(2021)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의 논문 392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방법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상 논문의 초록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분석 단위로 삼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 K-pop 연구는 K-pop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게 된 2017년을 기점으로 양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2017년 이전 시기 연구 키워드는 크게 ‘한류와 K-pop’, ‘대중문화 산업’, ‘K-pop의 특징’이라는 3개의 군집을 형성했고, 2018년 이후 연구 키워드는 ‘K-pop과 콘텐츠’, ‘문화 전이’, ‘BTS와 팬덤 행동’, ‘K-pop 산업의 현황’이라는 4개의 군집을 형성했다. 이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객관성을 표방했지만, 키워드 군집의 범주와 의미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따라서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연경·김태중(2024)의 연구는 K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24년 2월까지 K-pop 관련 논문 551편을 대상으로 키워드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미 주어진 키워드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 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보다 진일보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K-pop 연구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 군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토픽을 추출했다: 1) K-pop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적용, 2) K-pop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한류 문화 확산, 3) K-pop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과 성공 요인 분석, 4) 한류를 통한 K-pop의 글로벌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 5) K-pop 산업에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팬덤 문화의 진화.

국내 K-pop 연구 동향 연구 이외에 국외 K-pop 연구 동향 분석 논문도 존재한다. 권진주(2023)는 마찬가지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이 논문은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발행된 K-pop 관련 학술 논문 149편을 분석했다. 저자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젠더, 여성, 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며, 중남미 지역의 팬덤과 수용에 관한 연구가 부상하고 있고, 미국 내 문화현상으로서 BTS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초국가적 산업으로서 한류’, ‘K-pop 글로벌 팬덤’, ‘한국 대중문화로서의 K-pop’, ‘소셜미디어와 K-pop’이라는 네 개의 군집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 K-pop 연구 동향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분석 대상 논문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나 토픽 모델링 등 양적 방법론에 치중하여 연구 내용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K-pop 연구의 학문적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의 국내 K-pop 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 동향의 다각적 이해를 도모한다. 셋째, 학문 분야별, 주제별, 시기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K-pop 연구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그린다. 넷째, K-pop 연구의 학문적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K-pop 연구의 현주소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K-pop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K-pop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방법

3.1. 접근 방법

이 논문에서는 국내 K-pop 학술 연구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자 했다. 첫째, 논문 저자의 키워드에만 의존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는 달리, 논문 초록과 일부 논문의 본문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연구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했다. 논문 저자가 제공하는 키워드는 저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추가적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균등 불균일하며 다른 논문의 키워드와 즉각 비교 가능한 단위로서 그리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처럼 수백 편 정도의 논문이라면 단독 또는 공동 연구자가 논문 초록을 충분히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분량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이나 빅데이터 방법론이 밝혀낼 수 있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범주와 항목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논문에 좀더 깊이 들어가서 K-pop 연구의 세부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논문의 주제 분야와 범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중문화와 대중음악의 작동 논리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기본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본 분석틀을 바탕으로 고려하고, 논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연구 현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주제 분야와 범주를 구성하고자 했다.

셋째, 국내 K-pop 연구는 202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동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최근 연구 동향의 특징과 변화 양상에 보다 집중하여 논의했다.

3.2. 데이터 수집

연구 대상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했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학술지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색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저자, 발행년도, 게재 학술지, 주제 분류, 키워드, 초록 등 기본 서지정보를 제공하며 여러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준다.

연구를 위해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K-pop’ 또는 ‘케이팝’을 주제어 또는 제목에 포함하는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어와 영어 논문만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중국어, 일본어 등 기타 언어는 분석에서 배제했다. 검색 결과, K-pop에 대한 학술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처음 게재된 200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KCI 등재지와 우수등재지에 총 646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지 635건, 우수등재지 11건). 이 중에서 비정규 논문 12건과 철회 논문 1건을 제외하고 정규 논문 633건의 데이터를 내려받았다. 서지 정보를 endnote용 파일로 내려받아 Endnote 프로그램에서 논문 기본 정보와 함께 논문 초록을 열람했으며, 서지 정보를 Excel 파일로도 내려받아 코딩 작업에 사용했다. 논문 목록을 일차로 검토한 결과, 정규 논문이 아닌 논문, K-pop과 거의 관계가 없거나 적은 논문,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논문 등 122건을 제외하고 총 511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¹⁾

1) 제외된 논문은 K-pop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국 대중문화, 한류, 한국 대중음악 등을 다룬 논문이면서 K-pop의 비중이 매우 적거나 K-pop이 매우 주변적인 논문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예술 산업의 역사, 발라드 가요의 가사 분석, 한국 스트리트 댄스 분석, K-Jazz, 트로트, 랩 음악 분석 등). 연구대상 논문의 전체 목록, 범주별 분류 현황, 제외된 논문 목록 등을 공개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inyurl.com/y2v2t648>.

3.3. 데이터 분석

선정된 511건의 논문에 대해 (1) 연도별 논문 발행 추이 분석, (2) 학술지별 논문 게재 수 분석, (3) KCI 분류 기준에 따른 학문 분야별 분포 분석, (4) 주제 범주별 논문 수 분석을 실시했다. 주제 범주화를 위해 각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여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11개의 주제 범주를 도출하였다. 범주화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 간의 교차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화되었다.

K-pop 연구의 학제적 특성상 하나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범주에 걸치는 논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문의 성격에 따라 여러 범주로 걸치는 경우 가장 유력한 2개의 범주까지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1/3 정도 되는 151건을 2개 범주로 중복 코딩하여 총 코딩수는 662건이다 (단 교육과 활용에 해당하는 논문은 중복 코딩하지 않고 단일 범주로 코딩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K-pop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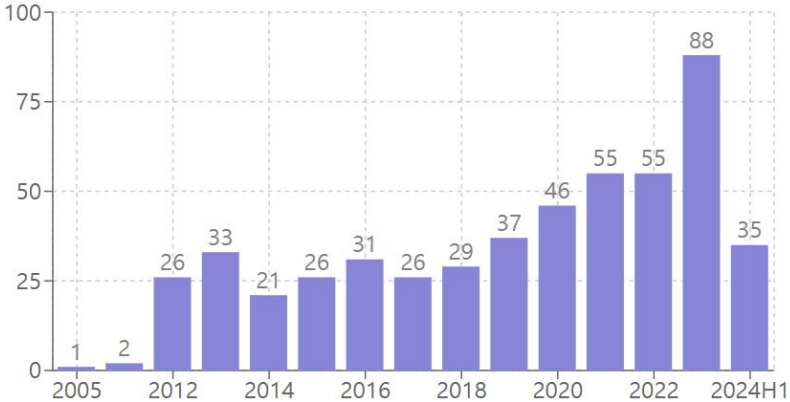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4.1. 학술 논문의 연도별 발행 추이 접근 방법

이 논문에서는 K-pop에 관한 학술 논문은 2005년 처음 학술지에 게재된 후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K-pop이 1990년대 말에 등장하여 이른바 2세대 K-pop이 이미 2000년대에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에 비춰보면, K-pop을 진지한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K-pop 학술 논문은 2012년 이후 2010년대에 26편에서

37편 사이를 오가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20년 46편, 2021, 2022년 55편, 2023년 88편, 2024년 상반기 35편으로 발행 논문 수가 뚜렷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



이러한 발행 추이는 다음과 같은 K-pop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초기 (2005-2011): 이 시기에는 K-pop에 대한 학술 논문의 수가 극히 적다. 그러나 K-pop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미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²⁾ 오히려 2000년대는 아이돌 팝을 포함하여 대중음악에 대한 지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가 확대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중 매체, 대중 서적 등을 통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적 작업이 학술 논문으로 수렴된 것은 아니며, 동시에 관련되는 현상이 모두 'K-pop'이라는 기표로 흡수된 것도 아니다.³⁾

2) 첫 원고에서는 이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3) '아이돌 팝'과 K-pop'은 호환적인 기표지만, 후자는 외부로부터 규정된 차원과 외부 지향적

- 성장기 (2012-2019): 이 시기에 K-pop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학술적 관심도 증가했다. 이 시기 동안 연간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급성장기 (2020-현재): 2020년 이후 K-pop 연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달성(2020년) 등 K-pop의 글로벌 성공이 정점에 달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도 K-pop의 글로벌 확산과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흥 추이는 K-pop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논문 수가 급증한 것은 K-pop이 글로벌 대중문화의 주요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K-pop 연구의 양적 성장에 대한 설명은 K-pop의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국내 학술 제도와 관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4.2. 주제 분야별 학술지 논문수

분석 대상인 511건의 학술 논문을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여한 학술지의 학문분과 주제 분야에 따라 분류한 결과, K-pop 연구가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복합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다각도의 학문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학문 분야별 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분포는 K-pop 연구가 경영학, 예술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

차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문자 이전의' K-pop 연구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며 해당 현상의 외향적 차원에 대한 인식이 전면화되기 이전임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연구 동향과 지적 담론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했으며, 보다 심화된 작업은 이후 연구에 맡긴다.

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학제적 연구 또는 복합학 학술지 게재 논문이 119편으로 가장 많은 점이다. 이는 K-pop이 새로운 학술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학문분과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새로운 학제적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면, 학제적 연구는 학계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K-pop을 비롯한 한류가 새로운 영역 구축을 위한 유력한 대상으로 포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주제 분야별 논문수

주제 분야	세부 주제 분야	논문수
학제적 연구	학제적 연구	119
경영학	경영교육, 경영전략/정책, 경영학, 관광학, 국내마케팅, 무역학, 문화예술경영, 산업/서비스경제, 생활과학	68
예술체육	감성표현예술, 디자인, 무용, 미술, 예술, 체육, 만화영화/컴퓨터애니메이션, 무도학, 무용, 미용, 여가레크리에이션, 예술교육, 예술일반, 의상, 체육	63
사회과학	과학기술사회학, 감성과학, 법학, 사회과학, 지리학, 사회학, 정책학, 정치사회/문화, 정치외교학, 지역학, 지적재산권법, 통계학	58
인문학	감성과학, 감성문화/사회, 교양기초교육, 기록관리/보존, 문헌정보학, 영화이론, 종교학, 중국문화학, 철학, 프랑스문화학	50
과학기술공학	공학, 과학기술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정보디자인, 정보통신시스템, 컴퓨터학, 수산학	44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산업, 신문방송학, 매스커뮤니케이션, 휴먼커뮤니케이션	34
한국학	한국, 한국어와문학	26
어문학	국문학, 문학, 언어학, 영상문학, 영어와문학, 일본어와문학, 통역번역학, 프랑스어와문학	21
음악학	음악학, 대중/실용/영화음악, 서양음악이론/분석	19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사교육, 교육학, 영어교육, 한국어교육학	9
합계		511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참여는 K-pop 연구의 풍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다양성이 K-pop 연구의 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K-pop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K-pop 연구만의 고유한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3. 학술지 통계

학술지별 논문 게재수를 살펴보면, K-pop 연구가 다양한 학술지에 분산되어 게재되고 있음과 동시에 특정 학술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pop 연구의 학제적 특성과 함께, 특정 학술지들이 K-pop 연구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술지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34건), 『문화와융합』(28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4건)의 세 개 학술지가 K-pop 관련 논문을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했다는 점이다 (<표 2>). 이 세 개의 학술지는 학제적 연구 또는 복합학 학술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학제적 연구 또는 복합학 학술지 게재 논문이 많다는 관찰 결과를 설명해준다. 기존 학문 분과에 속하는 학술지들 역시 K-pop 관련 논문을 꾸준히 생산해왔으나, 최근의 급격한 논문 수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K-pop 연구 논문의 급증이 주로 앞서 언급한 복합학 성격의 세 학술지의 역할 확대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 학술지는 게재 논문 수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향후 K-pop 연구에서 학제적 연구와 이들 학술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학술지별 논문수

학술지명	분과 분류	논문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학제	34
문화와융합	학제	30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학제	24
대중음악	예술체육	9
문화산업연구	경영학	9
Korea Journal	인문학	8
Korea Observer	사회과학	8
인문사회 21	사회과학	8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공학	8
글로벌문화콘텐츠	인문학	7
디지털융복합연구	자연과학 공학	6
인문콘텐츠	인문학	6
관광학연구	경영학	5
문화콘텐츠연구	인문학	5
조형미디어학	예술체육	5
지역사회학	사회과학	5
미디어, 젠더 & 문화	사회과학	5
패션 비즈니스	경영학	5
Korea Business Review	경영학	4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예술체육	4
문화경제연구	학제	4
상품학연구	경영학	4
여성문학연구	인문학	4
예술교육연구	교육학	4
한국무용학회지	예술체육	4
한국언론정보학보	사회과학	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경영학	4

그러나 ‘복합학’이나 ‘학제적’이라는 범주는 본질적으로 모호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논문

들이 실제로는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학이나 학제적 연구가 K-pop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현상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지들의 구체적인 성격과 게재 논문들의 특성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문화와융합』은 한국문화융합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5년 등재 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였다. 2015년 30편의 논문 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 374편, 2021년 604편, 2022년 760편, 그리고 2023년에는 992편의 논문을 발행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는 2012년 처음으로 연간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2023년에는 241편의 논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의 경우, 2005년 191편의 논문 발행을 시작으로 2010년대 이후에는 매년 평균 600-700편의 논문을 꾸준히 발행하며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세 개 학술지 게재 논문은 거의 대부분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에 집중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학술지 논문 발행 연도별 추이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 증가, 2020년대 급증 경향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K-pop 연구의 전문화,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연구 주제의 융합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K-pop 관련 논문의 급증은 융합 또는 복합학 등을 표방하는 학회와 학술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맥락 또한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융합학 또는 학제적 연구를 표방하는 이 학술지는 기존의 인문 사회과학 학술지와는 다른 방식과 논리로 작동해왔으며, 문화의 산업화와 콘텐츠화, 인문사회과학 학과와 학계의 '콘텐츠적 전환', 이에 대한 국가적 공적 개입과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변화 속에서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뤄왔다는 맥락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K-pop 연구가 학술계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

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K-pop 연구는 학제적 접근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갈 것이지만, K-pop에게 있어 학제적 접근 또는 복합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되는 기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K-pop 논문 출판과 연구 동향의 양적 측면을 분석했다. 이러한 기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K-pop 관련 학술 지식 생산의 전반적 지형도를 그릴 수 있었다.

국내 K-pop 연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점차 활성화되다가 2020년대에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K-pop 자체가 글로벌 무대에서 폭넓은 팬덤을 구축하고 산업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국내 학술 제도 내에서 이른바 융합학 또는 학제적 연구의 진흥이라는 지식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양적 분석을 넘어, 국내 K-pop 연구의 주제 범주와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4.4. 주제 범주

연구 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지식 생산 현황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다. K-pop과 한류 연구 동향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논문 저자가 제공한 키워드를 직접 분석 단위로 활용한다(권진주, 2023; 오지민·이수범, 2021). 키워드 분석의 장점은 저자의 의도를 직접 반영할 수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관련성과 중요도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귀옥·손승혜·강필임, 2016; 홍석경·박대민·박소정, 2017).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키

워드가 논문 내용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논문이나 초록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또한, 키워드 간의 연결 외에 연구 대상의 고유한 논리나 맥락을 놓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분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분석이 제공하는 연결의 지도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질적 평가와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문 초록을 직접 검토하여 주제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키워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K-pop 연구의 더 깊이 있는 동향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pop 관련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기존 연구 동향 분석과 예비적 자료 검토를 토대로 11개의 주제 범주를 도출하였다. ‘텍스트와 재현’, ‘산업과 생산’, ‘매개와 순환’, ‘제도와 정책’, ‘수용과 팬덤’, ‘교류와 전파’라는 범주는 문화 텍스트, 문화 생산, 규제, 문화 수용의 과정을 포괄한다. ‘맥락과 시각’은 K-pop 자체가 아니라 연구와 담론 차원을 다루는 메타 범주이며, ‘국가 경제적 효과’는 ‘생산’과 ‘규제’ 계기와 관련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한류와 K-pop이 갖는 고유한 의미를 보여주는 범주이며, ‘교육과 응용’은 K-pop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실용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범주와 주제는 <표 3>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511개의 논문 초록을 검토하여 앞서 설정한 주제 범주에 따라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K-pop 연구의 학제적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많은 논문들이 단일 범주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범주에 걸쳐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논문의 성격에 따라 최대 2개의 가장 관련성 높은 범주까지 중복 코딩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3〉 주제 범주와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맥락과 시각	K-pop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 연구; K-pop 담론과 이론; K-pop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전망; K-pop 연구 동향과 오버뷰
텍스트와 재현	K-pop의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텍스트 분석; 음악 요소(리듬, 멜로디, 패턴 등), 가사, 언어, 댄스, 이미지, 패션, 영상, 뮤직 비디오 등 텍스트 의미 분석; 텍스트로서 스타와 아이돌 분석; 스토리텔링, 재현, 장르, 스타일, 세대별 변천 연구
산업과 생산	K-pop의 산업과 시장, 제작과 생산, 관리와 경영 연구; 아이돌 시스템, 산업 전략, 시장 전략, 성공 요인 분석; 상품과 콘텐츠 디자인 제작 개발; 스타 마케팅, 브랜딩, 홍보; 시장과 소비자 분석
매개와 순환	K-pop의 유통과 순환에 대한 분석; 미디어, 소셜 미디어, 유튜브, 플랫폼의 매개 연구; 라이브, 공연, 축제 연구; 차트,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분석; 트랜스미디어 연구
제도와 정책	K-pop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연구
국가 경제적 효과	K-pop의 산업적 국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소프트파워, 공공외교 연구; 관광과 한국제품 수출 효과
수용과 팬덤	K-pop의 소비와 수용에 관한 연구; 팬덤, 팬 생산, 참여 문화, 커버 댄스, 하위 문화 연구
젠더와 섹슈얼리티	K-pop과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체성에 관한 연구; 남성성, 여성성, 퀴어, 페미니즘 연구
교류와 전파	K-pop의 국제적 문화적 교류, 지구적 전파, 확산에 관한 연구; 세계화, 지구화, 현지화, 혼종성, 다문화 연구;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K-pop 전개, 한류로서 K-pop 연구
한국문화와 전통	K-pop과 한국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 전통문화, 한국적인 것에 관한 연구
교육과 응용	K-pop의 교육, 보건 등 기타 분야 활용과 적용에 관한 연구; 초중등 교육, 실용 음악 교육, 한국어 교육; 댄스, 체육 교육, 보건 분야 활용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결과, 전체 511개 논문 중 약 1/3에 해당하는 151개 논문이 2개의 범주로 중복코딩 되어 최종 코딩 수는 662건에 달했다. 다만, ‘교육과 활용’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일 범주로만 코딩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표 4>에서는 중복 코딩을 포함한 662건의 논문을 주제 범주별로 분류하고, 각 범주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K-pop 연구의 주제별 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 주제 범주에 따른 논문수와 연도별 추이

주제 범주	200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	계
맥락과 시각			3	4	1	2	2	1	2	3	2	2	3	5	2	32
텍스트와 재현		1	3	6	2	2	6	5	8	13	13	15	8	18	11	111
산업과 생산			7	9	3	6	5	6	5	5	12	16	10	19	6	109
매개와 순환			5	3	5	2	6	3	6	4	7	14	15	17	7	94
제도와 정책			1	1		1					1	2	2	1		9
국가 경제적 효과			3	2	7	4	4	2	2	4	3	2	3	5	3	44
수용과 팬덤			4	4	1	4	2	4	6	7	9	9	16	18	5	89
젠더와 섹슈얼리티			1			1		2	2		5	3	2	2	2	20
교류와 전파	1	1	9	9	3	9	11	7	2	7	5	7	9	14	3	97
한국문화와 전통			1		1	2	2	2		2	1	1	5	3		20
교육과 응용					4	2		2	4	3	4	6	2	10		37
합계	1	2	37	38	27	35	38	34	37	48	62	77	75	112	39	662

주제별 분포 양상을 분석한 결과, K-pop 연구의 지식 생산 지형이 명확히 드러났다.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산업과 생산, 텍스트와 재현, 교류와 전파, 매개와 순환, 그리고 수용과 팬덤의 다섯 가지 범

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다섯 주제 범주는 각각 89에서 111건 사이의 논문에서 다루졌으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도와 정책 범주는 상대적으로 연구 논문이 적게 생산되었다. ‘정체성’ 계기에 해당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한국문화와 전통 범주는 논문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각 주제 범주의 경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논문들을 언급할 텐데, 이는 해당 논문이 K-pop 연구를 객관적으로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주제 범주에서 새롭거나 특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냅샷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우선, 필자의 주요 활동 영역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중음악학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해당 영역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과 응용’ 범주는 초중고와 예체능 교육 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전문적인 분야로, 다른 주제 범주와는 구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필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이 범주는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각 주제 범주별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4.5. 주제별 연구 동향

4.5.1. 맥락과 시각

‘맥락과 시각’ 범주는 K-pop 현상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논문들은 K-pop의 사회문화적

맥락, 이론적 담론, 그리고 K-pop 연구 자체에 대한 메타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논문 수는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K-pop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연구로는 Ho(2012)와 김수정·김수아(2015)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Ho(2012)는 K-pop 스타 지망생들의 부모들이 가진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K-pop 현상이 한국 사회의 경쟁적 교육 체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김수정·김수아(2015)는 K-pop을 ‘집단적 도덕주의’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며, 한국의 가부장제와 집단주의적 문화가 K-pop의 발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탐구했다. 이들 연구는 K-pop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론과 담론 측면에서는 심두보(2013)와 심두보·최은경(2019)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심두보는 K-pop을 근대성, 지속가능성 등의 거시적 담론과 연결지어 분석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K-pop을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을 넘어 근대성,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박대민·이규탁(2022)의 연구는 K-pop 산업과 경제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K-pop 연구에 있어 마케팅과 산업 전략에 관한 논문은 많지만,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이론적 거시적 비판적 차원의 접근은 의외로 거의 없다. 이들은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K-pop 산업의 ‘금융화’와 ‘스타트업화’ 현상을 포착했다. 비록 직접적인 산업 분석이 아닌 뉴스 분석을 통한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는 K-pop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개념들은 최근 하이브의 경영 위기와 같은 K-pop 산업의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맥락과 시각’ 범주의 연구들은 K-pop을 단순한 음악 장르나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 글로벌 문화 산업의 동향, 그리고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들과 연결 지어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4.5.2. 텍스트와 재현

‘텍스트와 재현’ 범주는 K-pop의 사운드와 이미지, 오디오와 비디오, 장르와 스타일, 패션과 디자인, 스타와 아이돌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에는 어문학, 음악학, 미디어학, 무용학, 패션학 등 텍스트 분석에 특화된 학문 분과의 논문이 다수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의 음악적, 시각적 스타일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K-pop의 전반적인 미학적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범주에서 특히 눈에 띄는 트렌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김문정·김면(2018), 박소영(2021), 박은경(2023), 이동배(2019), 정지은(2019), 최윤영·고정민(2021) 등의 연구는 아이돌 그룹의 다양한 텍스트, 마케팅, 퍼포먼스를 가로지르는 개념으로서 ‘스토리텔링’에 주목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로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소영(2021)의 연구는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음악, 뮤직비디오, SNS, 팬미팅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일관된 서사를 구축하고 팬들과 소통하는지를 보여준다. 박은경(2023)의 연구는 BTS의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K-pop 아이돌의 이미지가 단순한 외모나

퍼포먼스를 넘어 복합적인 의미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운영·고정민(2021)은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를 연구했다. 특히 ‘리부트’와 ‘오마주’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K-pop이 어떻게 기존의 문화적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복합적인 문화 텍스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세계관 등의 개념은 K-pop의 독특한 생산 및 소비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K-pop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는 K-pop의 글로벌 성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K-pop의 복합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은 글로벌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향후 이 범주의 연구에서는 K-pop의 텍스트적 요소와 재현 방식이 글로벌 문화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K-pop의 문화적 영향력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K-pop의 텍스트적 변화와 새로운 재현 방식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5.3. 산업과 생산

‘산업과 생산’ 범주는 K-pop의 산업적 측면, 생산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포함하며, 주로 경영학, 디자인학, 문화콘텐츠학 등의 학문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영역의 연구들은 K-pop의 상업적 성공과 글로벌 확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 중에서 세 가지 주요 주제가 두드러진다. 첫째, 아이돌 시스템과 산업 전략에 관한 연구, 둘째, 마케팅과 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 셋째, 상품 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아이돌 시스템과 산업 전략에 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김호영·윤태진(201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돌 시스템 작동 방식을 분석하며, 아이돌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이중적 구조를 탐색했다. 이 연구는 K-pop 산업의 독특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마케팅과 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하경·전윤한(2022)의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아이돌 마케팅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이는 K-pop 산업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품 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실용적인 지향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기업의 입장에서 K-pop과 관련 아이템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방법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범주의 연구들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K-pop 산업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나 비판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수현·이시림(2018)의 논문은 예외적으로 아이돌 음악산업의 과점화라는 산업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음악의 상품화 경향이나 아이돌의 브랜드화 경향이 K-po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K-pop 산업의 핵심 상품인 음반, 음원, 굿즈(머천다이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향후 K-pop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이 K-pop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pop 산업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이돌의 노동 조건, 팬덤 문화의 상업화, 문화적 전유 등의 이슈들은 K-pop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들이다.

4.5.4. 매개와 순환

‘매개와 순환’ 범주는 K-pop의 유통, 순환, 매개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 이 범주는 미디어와 플랫폼, 공연과 축제, 음원과 스트리밍 연구 등을 포함하며, K-pop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매개 요소들이 작용하는지를 탐구한다.

이 범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유튜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K-pop의 글로벌 확산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이 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조하경·전윤환(2022)의 연구는 메타버스를 통한 K-pop 마케팅 전략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K-pop의 유통과 소비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K-pop 특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김수현·유지연(2021)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K-pop 팬덤 활동을, 신찬휴·황성준(2022)은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연구했다. 이규탁(2016)과 홍문정·이세진(2021)은 네이버의 V LIVE 플랫폼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팬 참여 방식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K-pop의 유통과 소비 방식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이 K-pop의 글로벌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매체나 오프라인 이벤트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에 관한 연구의 상대적 비중은 낮은 편이다. 맹양·한창완(2021)의 온라인 콘서트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대규모 콘서트, 투어, 팬미팅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K-pop의 중요한 매개 형태인 라이브 공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4.5.5. 제도와 정책

‘제도와 정책’ 범주는 K-pop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 이 범주는 K-pop의 발전과 확산에 있어 정부와 공공 기관의 역할, 그리고 법적, 제도적 환경이 K-po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 범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극히 전문화된 법제적 논의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K-pop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K-pop 음원의 해외 유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팬들의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의 수가 다른 범주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다. 이 범주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의 K-pop 진흥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 둘째, 정부 기관에 의한 K-pop 산업 규제와 개입(예컨대 표준계약서 도입)의 영향 분석, 셋째, K-pop 아이돌의 노동 조건과 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넷째, K-pop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문화외교 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 다섯째, K-pop 산업의 과점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그 효과.

K-pop의 성공과 확산이 단순히 시장의 논리나 문화적 요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 없이는 K-pop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4.5.6. 국가 경제적 효과

‘국가 경제적 효과’ 범주는 K-pop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 소프트파워, 공공 외교 등 국가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는 K-pop의 성공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국가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 범주의 연구들은 주로 관광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정량적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K-pop이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국가 이미지가 K-pop이나 한국산 상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양방향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자주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들이 K-pop 팬들의 한국 방문 의도나 한국 제품 구매 의도를 조사하여 K-pop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K-pop 아이돌의 광고 모델 활동이 한국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관련 연구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면, 공공외교 관련 연구는 그 외 지역(남미, 유럽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박윤주(2023)의 연구는 칠레에서의 K-pop을 활용한 공공외교 전략을 분석했다.

이주빈·김선영(2023)의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K-pop 연수 프로그램의 동남아시아 정책 수용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는데, 이는 기존의 정량적 접근을 벗어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K-pop의 영향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주의 연구는 대체로 K-pop의 긍정적 효과에만 집중되어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하다. 이 범주에서는 ‘안티 K-pop’이나 ‘혐한류’ 등의 현상은 부작용 정도로 치부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방법론 개발, 정교한 효과 측정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K-pop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려면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5.7. 수용과 팬덤

‘수용과 팬덤’ 범주는 K-pop의 문화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으로, K-pop의 소비와 수용, 팬덤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는 텍스트, 생산, 매개, 교류와 함께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로, K-pop 현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미디어 수용자 연구에서 축적된 학술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K-pop의 수용과 소비, 하위문화 형성, 수용자 참여, 팬 생산, 팬 노동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K-pop의 특성상 수용과 팬덤 범주는 산업과 생산, 매개와 순환, 젠더와 섹슈얼리티, 교류와 전파 등 다른 거의 모든 범주와 활발히 교차하면서 K-pop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 팬덤의 참여 문화: K-pop 팬들의 능동적인 문화 생산 활동, 예를 들어 팬아트, 팬픽, 커버 댄스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트랜스내셔널 팬덤: K-pop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K-pop이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 디지털 미디어와 팬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K-pop 수용과 팬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 팬 정체성과 커뮤니티: K-pop 팬덤이 형성하는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팬 커뮤니티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팬 노동과 경제: K-pop 산업에서 팬들의 활동이 갖는 무료노동 또는 열정노동으로서 성격에 대한 연구, 경제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마티유·조영한(2017)의 연구는 초국가적 맥락에서 팬과 수용자의 시선의 교차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한국 내 K-pop 팬들이 해외 팬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K-pop 팬덤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주었다. 왕월·박지훈(2022)의 연구는 중국의 사이버내셔널리즘 맥락에서 K-pop 수용과 반대(혐한류)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K-pop 수용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국가 간 관계와 정치적 맥락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in(2021)의 연구는 칠레 팬들에게 K-pop 아이돌이 어떻게 이상적인 남성성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는 K-pop 수용 연구가 젠더와 섹슈얼리티 연구와 교차하는 사례이다. Shin(2018)의 연구는 K-pop 스타의 코스프레를 통한 쿼 문화 실천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K-pop 팬덤 활동이 어떻게 성 정체성 탐구와 표현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 수용과 팬덤 연구가 단순한 현상 기술을 넘어 문화 연구, 미디어 연구, 젠더 연구 등 다양한 학문적 전통과 접목되어 풍부한 논의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특정 팬덤 그룹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팬덤의 긍정적 측면에만 치중한다는 점, 팬덤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없다는 점, K-pop의 팬덤이 아닌 일반적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수용과 팬덤 범주의 연구들은 디지털 시대의 팬 문화와 초국가적 문화 수용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K-pop 현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5.8. 젠더와 섹슈얼리티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논문수가 적은 범주로서, 남성성, 여성성, 퀴어 등의 주제를 다루며 페미니즘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주로 ‘텍스트와 재현’ 범주와 교차하여 K-pop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답습하는 연구가 다수지만, ‘수용과 팬덤’ 범주와 교차하며 K-pop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Min, 2021; Shin, 2018).

‘젠더와 섹슈얼리티’ 범주는 K-pop에서 나타나는 젠더 표현, 성 정체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K-pop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표현, K-pop에서 퀴어 문화, K-pop 아이돌의 젠더 수행,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K-pop 분석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이다. 이 범주는 상대적으로 논문 수는 적지만, K-pop의 문화적 영향력과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 범주의 연구들은 주로 ‘텍스트와 재현’ 범주와 교차하여 K-pop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용과 팬덤’ 범주와 교차하여 K-pop 팬들의 젠더 관련 인식과 실천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

주목할 만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hin(2018)의 연구는 한국의 K-pop 팬들이 수행하는 크로스젠더 코스프레 실천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K-pop 팬 문화가 어떻게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을 탐험하는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Min(2021)의 연구는 칠레 팬들에게 K-pop 남성 아이돌이 어떻게 이상적인 남성성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K-pop이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도전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이상적 남성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태(2020)의 연구는 K-pop 걸그룹의 퍼포먼스에 나타난 여성성의 표현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K-pop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이 어떻게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면서도 동시에 도전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복잡한 문화적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pop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도전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글로벌 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수용되고 있다.

이 범주의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아이돌의 이미지나 퍼포먼스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K-pop 산업 구조나 제작 과정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퀴어 커뮤니티와 K-pop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훨씬 적다. 셋째, K-pop 수용자들의 젠더 인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넷째,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를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예를 들어 계급, 인종, 국적 등)과 교차 분석하는 연구가 드물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K-pop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대중문화가 지역적 젠더 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5.9. 교류와 전파

‘교류와 전파’ 범주는 K-pop의 국제적 문화적 교류, 지구적 전파, 확산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는 세계화, 지구화, 현지화, 혼종성, 다문화와 같은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K-pop의 글로벌 확산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초기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심이었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북중미, 남미, 유럽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중동, 아프리카 등 더욱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별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며 이는 K-pop 자체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주제는 K-pop의 글로벌 흐름 분석, K-pop에 나타나는 글로벌-로컬 혼종성 연구, 초국가적 팬덤 네트워크, K-pop의 지역별 적응과 현지화 분석 등이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K-pop의 수용과 인기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별님(2022)의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K-pop 수용을 분석하여, K-pop 연구의 범위를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확장했다. 박범근·조태선(2022)과 황은지(2023)의 연구는 각각 퓨전 국악과 월드뮤직으로서의 K-pop을 분석하여, K-pop의 문화적 혼종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K-pop을 통해 현대의 초국가적 문화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향후 이 범주의 연구에서는 K-pop을 통한 문화 교류가 국제 관계와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지구적 음악 산업의 변화 속에서 K-pop의 산업 네트워크의 확장,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K-pop의 글로벌 확산 양상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5.10. 한국문화와 전통

‘한국문화와 전통’ 범주는 K-pop과 한국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K-pop을 한국의 전통문화, 현대 문화, 그리고 ‘한국적인 것’과 연관 지어 분석하며, K-pop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한다. 이 범주는 논문 수는 상대

적으로 적지만, 한국의 사회적, 학술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산하기 때문에 K-pop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보인다. 첫째, K-pop과 한국 문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접근으로서, K-pop을 한국 문화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하려 한다. 예를 들어, K-pop 아이돌 그룹의 군무를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연결 짓거나, K-pop의 리듬과 멜로디에서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K-pop의 혼종성과 초국가성을 강조하는 접근으로서, K-pop을 글로벌 대중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한다. K-pop이 서구 팝 음악, 일본의 아이돌 문화, 흑인 음악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혼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적인 것’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이 범주의 주류적 연구들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거나 본질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K-pop과 한국 문화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K-pop의 초국가적, 혼종적 성격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Saeji(2022)와 Willoughby(2022)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K-pop과 한국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 외부자적 시선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의 ‘한국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공하며, K-pop을 통해 ‘한국적인 것’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국가 문화 정체성 형성과 변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의 초국가적 흐름과 지역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5.11. 교육과 응용

‘교육과 응용’ 범주는 K-pop을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실용적 분야에 활

용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범주는 K-pop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닌 K-pop을 도구로 활용하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주제 범주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K-pop의 사회적 영향력과 실용적 가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범주의 연구들의 주요 연구 주제는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언어 교육, 실용 음악 교육, 체육과 댄스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긍정적 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한편, 본 연구의 저자는 이 범주가 초중고와 예체능 교육 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저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섹션에 대한 언급은 전체적인 동향을 개괄하는 수준에 그치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K-pop 관련 학술 논문 511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K-pop 연구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K-pop 연구는 문화 생산, 순환, 수용, 규제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국가 이미지, 커버댄스, 지구화와 혼종성, 한국문화 전통 등 K-pop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K-pop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K-pop 연구에는 여전히 중요한 과

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정치경제, 음반과 굿즈, 공연, 음원과 스트리밍, 규제와 개입, 혐한류와 안티 K-pop 등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는 K-pop 연구가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K-pop 연구와 '대중음악 연구' 전통 간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K-pop 연구가 기존의 대중음악 연구 전통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시각과 영역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음악 연구 전통에서 발전해 온 이론, 개념, 방법론 등이 적용된 연구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기존 대중음악 연구가 K-pop을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K-pop이 대중음악 전통의 이론과 방법론에 딱 들어맞는 대상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⁴⁾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K-pop 연구에 기반한 새로운 이론이나 분석틀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별 학문 분과 내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K-pop 연구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는 K-pop 연구가 현재 직면한 중요한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하이브 사태에 대해 산업적, 정치경제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K-pop 산업의 자해적 경쟁, 음반 쓰레기와 투기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즈니스 모델 등 K-pop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K-pop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4) 초고에서는 이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대중음악 연구 일반과 K-pop 연구 간의 관계에 대해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현실 반영성을 강화하여 K-pop 산업과 문화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K-pop 산업 분석, 지속가능성, 디지털 플랫폼과 팬덤 연구 등을 포함한다.

둘째, 학제적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개별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통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pop’이라는 대상 자체가 학문 융합을 내포했다면 그를 넘어서서는 이론적 방법론적 통합의 심화가 필요하다.

셋째, K-pop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분석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랜스문화, 트랜스미디어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정교화하고 체계화하여야 하며,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 시각도 필요하다.

넷째, K-pop 산업과 문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경제학적 분석, 노동과 인권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K-pop의 변화와 발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pop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여섯째, K-pop을 보다 넓은 글로벌 대중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K-pop을 미국과 전세계 음악 산업의 지구적 디지털적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K-pop의 부상을 라틴 음악, 볼리우드 음악, 나이지리아 음악의 권역적·지구적 부상과 상호관련 속에서 이해하는 시도도 생각해 볼 만하다.

K-pop은 한국 대중문화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K-pop 연구 또한 이러한 K-pop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들이 K-pop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학술지 논문

- 강별님.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참여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2). 2022.
- 권진주.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케이팝(K-Pop) 해외 연구 동향 분석」. 『인문콘텐츠』 68. 2023.
- 김문정 · 김면. 「K-POP 아이돌 음반의 스토리텔링 전략 사례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1). 2018.
- 김수정 · 김수아. 「'집단적 도덕주의' 에토스: 혼종적 케이팝의 한국적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23(3). 2015.
- 김수현 · 유지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메타버스 인식과 수용방식 연구: 에스파(aespa) 팬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7). 2021.
- 김준희. 「K-pop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1(2). 2019.
- 김호영 · 윤태진.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돌(idol) 시스템 작동방식: 아이돌문화 생산·소비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4). 2012.
- 마티유, 베르비기에 · 조영한. 「케이팝(K-pop)의 한국 팬덤에 대한 연구: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1. 2017.
- 맹양 · 한창완. 「위드 코로나 시대 케이팝(K-pop) 온라인 콘서트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7(4). 2021.
- 박대민 · 이규탁. 「한류의 산업화, 금융화, 그리고 스타트업화: 한류와 K-POP 보도 21년치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2. 2022.
- 박범근 · 조태선. 「케이팝과 월드뮤직의 융합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3). 2022.
- 박소영. 「아이돌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전략: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11). 2021.
- 박윤주. 「한국 청년 공공외교의 성과와 한계: 칠레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7(1). 2023.
- 박은경. 「케이팝 아이돌 캐릭터 이미지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BT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4). 2023.
- 신찬휴 · 황성준.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 사례 연구」. 『e-비즈니스연구』 23(6).

- 2022.
- 심두보. 「케이팝(K-pop)에 관한 소고: 한류, 아이돌 그리고 근대성」. 『사회과교육』 52(2). 2013.
- 심두보 · 최은경. 「한류 연구의 비판과 확장: 한류 생태학의 모색」. 『문화와융합』 41(5). 2019.
- 오지민 · 이수범. 「국내 케이팝 연구의 지식구조 연구: 2012-2021년의 연구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9(4). 2021.
- 왕월 · 박지훈. 「Homeland vs. Korean idols: Cyber-nationalism in Chinese K-Pop Fandom」. 『글로벌문화콘텐츠』 52. 2022.
- 이귀옥 · 손승혜 · 강필임. 「중국의 학술문헌을 통해 본 중국한류 15년: 한류 관련 학술 문헌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1). 2016.
- 이규탁.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케이팝, 그리고 수용자」. 『예술경영연구』 39. 2016.
- 이동배. 「글로벌시대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연구 - 케이팝 BTS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7. 2019.
- 이수현 · 이시림. (2018).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과점화와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 아이돌산업 내 과점 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8(2). 2018.
- 이연경 · 김태중.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K-POP 연구 동향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4). 2024.
- 이주빈 · 김선영. 「문화 ODA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K-Pop 연수 프로그램,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6(2). 2023.
- 정지은.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9(3). 2019.
- 조하경 · 전유한. 「수용미학적 관점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 아이돌 마케팅 성공요인 연구」. 『문화와융합』 44(11). 2022.
- 최윤영 · 고정민.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 연구: 리부트와 오마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2021.
- 홍문정 · 이세진.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휴먼브랜딩: V LIVE 를 이용하는 K-POP 스타의 중국 팬덤을 대상으로」. 『광고 PR 실학연구』 14(1). 2021.
- 홍석경 · 박대민 · 박소정. 「한류연구의 지식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61(6). 2017.
- 황은지. 「케이팝과 퓨전국악의 글로벌 소통과 융합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8). 2023.
- Ho, S.-L. "Fuel for South Korea's 'Global Dreams Factory': The Desires of Parents Whose Children Dream of Becoming K-pop Stars". 『Korea Observer』 43(3). 2012.

- Min, Wonjung. "The perfect man: The ideal imaginary beauty of K-pop idols for Chilean fan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4(1). 2011.
- Saeji, CedarBough. "Building a K-Community: Idol Stars Challenging Foreign Fans to Learn Korean Traditions". 『Acta Koreana』 25(2). 2022.
- Shin, Layoung. "Queer Eye for K-Pop Fandom: Popular Culture, Cross-gender Performance, and Queer Desire in South Korean Cosplay of K-pop Stars: Popular Culture, Cross-gender Performance, and Queer Desire in South Korean Cosplay of K-pop Stars". 『Korea Journal』 58(4). 2018.
- Willoughby, Heather. A. "Bona Fide True Symbols: BTS as Purveyors of Authentic Koreanness". 『이화음악논집』 26(1). 2022.

The Growth and Poverty of K-pop Researc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from 2005 to 2024

Chae, Suk Jin* · Lee, Jung-Yup**
(Chosun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 trends in K-pop studies within South Korea from 2005 to 2024, analyzing 511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K-pop studies have develop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dentify major research themes and their evolution,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field. Using a mixed-method approach combining quantitative analysis of publication trends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study categorizes K-pop research into eleven thematic areas. The findings reveal a significant increase in K-pop research, particularly after 2020, reflecting the global rise of K-pop. The study identifies key research areas such as industry and production, text and representation, global dissemination, media and circulation, and fandom studies. While the research demonstrates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K-pop studies, it also highlights several limitations. These include a lack of critical political-economic analyses,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insufficient research on certain aspects of the K-pop industry (such as physical albums and merchandise), and a disconnection from broader popular music studies traditions. Moreover, the study notes a scarcity of new theoretical frameworks or analytical models specific to K-pop.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emphasizing the need for mor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development of K-pop-specific theories, and studies addressing current issues in the K-pop industry. This meta-analysis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academic landscape of K-pop studies and provides insights for its future development in line with K-pop's global cultural significance.

Keywords: K-pop, research trends, Korean popular music, cultural studies, meta-analysis.

논문 투고일: 2024년 08월 31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4년 10월 28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4년 10월 29일